



동합평일반산업단지 착공 4일 오후 이낙연 국회의원,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안병호 함평군수, 양규모 함평군의회 의장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합평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다. 동합평일반산업단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에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을 투입해 모두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220억 짜리 '수산물 지원센터' 1년째 개점휴업...운영비만 연 14억  
340억 투입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 6개월 넘게 공사 중단상태  
72억 들인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준공한지 4년 아직도 '텅텅'

### '애물단지' 목포시 대형사업...누굴위한 행정?

목포시가 추진한 대형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완공된 시설도 애물단지로 전락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0억원을 투입해 연산동 북항 환경관리소 인근에 건립한 '수산물 지원센터'는 1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만여㎡ 부지에 3층 규모의 연구동과 생산동이 들어선 이곳에는 현재 전남도 산하기관 단 1곳만 입주해 있다.

관사키라고 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연구동은 김·미역·어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자 입맛에 맞는 식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입주업체에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생산동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해 영세업체가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72억원을 들여 옛 광동상가를 리모델링 해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했지만 이곳 역시 제 기능을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체면적 1만㎡,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준공 4년째를 맞이 센터의 현재 입주 점포는 16개

에 불과하다. 3~6층에는 수산물 관련 점포가 입주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산물 관련 점포가 아닌 다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공사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신안 증도에 '한국형 몰디브 수상가옥' 뜬다

전남도, 274억원 투입  
2015년 8월까지 완공

팔리핀과 몰디브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고급 리조트형 수상가옥이 신안 증도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4월 "신안 증도에 휴식과 레저를 겸한 리조트형 수상가옥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상가옥은 통상 물 위

(66~135㎡)과 실내 스파, 레스토랑, 주차장, 진입도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오는 2015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큰 섬이 주변을 둘러싸 태풍 등 자연재해에 안전한 바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 연인, 동호회 등을 위한 이색적인 숙박시설과 함께 아름다운 해변과 야외 특설공연장, 지역 특산물 등 판매장이 들어선다.

자 심사, 건축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질, 파랑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특히 체류형 해양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섬, 갯벌, 해안선 등 전남의 빼어난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수요자 기호를 충족하고 해양관광객 유치로 나후면 지역 어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전북

# 금강하굿둑 바닷물 유통... 전북·충남 깊어지는 갈등

충남 "금강호 수질개선 위해 공급해야"  
전북 "금강상류 오염원 줄이기가 먼저"

금강하굿둑 바닷물(해수) 유통을 놓고 전북과 충남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의 '해수 유통'에는 금강호 수질개선 대책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 등 전북도는 "수질개선을 위해선 충남지역의 금강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해선 금강 유역 전체, 특히 중·상류 지역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충남지역의 공동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농·공업용수 전면 중단으로 농업과 지역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할 때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충남도와 서천군의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말 결의문을 통해 ▲금강하구 농업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적극 검토 ▲난립한 국책시설로 황폐해진 하구역 생태계 조사·연구와 환경복원 대책 수립 ▲국무총리실 책임 아래 금강하구 관리체계 마련 ▲3대 강 하구에 대한 하구관리법 마련과 민·관·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서천군의 요청으로 국토부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 "서천군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용 불가를 천명하며 반발하는 등 전북과 충남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 부안 청호권역 정비 46억 투입

계화도 간척지의 젖줄인 청호저수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부안군에 따르면 청호권역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46억원을 들여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청호권역의 종합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 한창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완료한 뒤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지역활성화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도 펼쳐진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변산반도와 새만금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말농장 운영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등 자립형 농촌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재근 군 건설과장은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순창군·원광대 건강장수산업 협약 순창군이 힐링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와 건강장수산업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4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원광대학교(총장 정세현)와 '물 좋은 순창 건강안 순창'이란 지역 브랜드와 전문성의 융합으로 순창에 머무르면서 건강을 지키는 신개념의 힐링산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건강장수연구소에 원광대학교대사상실원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힐링거점을 위한 양·한방 복합 의료시스템 구축, 온천을 활용한 수치료법 등 국가 R&D 사업 추진, 지역과 연계한 식품·농업·관광·체육 상품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단신

부안군, 하반기 장애인콜택시 1호 운영 부안군은 4월 을 하반기부터 지역 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1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이동지원센터 설치, 택시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조례의 예법예고 후 조례 공포, 차량 구입, 운영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정읍시, 추억의 전통가게 8곳 선정 정읍시는 4일 "주민과 동고동락해 온 추억의 전통가게를 육성하기로 하고 1차로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정읍민속대장간, 유행제복사, 영진도자점, 서울미시양산, 전승명가, 정주액자, 대성표구사, 대양삼물집 등이다. 시는 이들 가게에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귀농인 13명 농기계 기초운행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4일 남원시로 전입한 귀농인 13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초운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보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평소 영농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요 농기계를 중심으로 실습위주의 기계 작동원리, 운전조작, 기초 점검정비 등을 다뤄 호응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희망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농기계사업 확대와 순회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백금석기자 bs8787@

완산도서관 '배움의 본질 인문공부' 특강 전주시 평생교육원 완산도서관은 8일 오전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완산도서관 강당에서 '배움의 본질로서의 인문공부'라는 주제로 특강을 운영한다. 지리산 탐기동자도 유명한 한재훈 교수가 강연을 맡아 배움의 본질로서



부안 충훈·불멸탑 제막 4일 김호수 부안군수를 비롯한 박천호 군의회장, 이옥성 보건가족사랑회 회장 등 50여명의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훈·불멸탑 제막식을 가졌다. 부안을 선운리에 위치한 충훈·불멸탑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변신지구 작전 수행 중 산화한 의용경찰 28명의 충훈을 기리기 위해 1975년 건립됐으나, 부안진입로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 공사로 편입돼 이전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